

## 과대학급근무 초등보건교사의 직무소진경험

박 시 현\* · 권 진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 질병관리 초점은 질병치료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그리고 건강증진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만성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에 2011년 비만인 학생이 14.30%로 2007년 보다 2.74% 증가하였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청소년체격은 향상되었지만 생활양식과 습관이 변화되어 비만, 집단따돌림, 자살, 인터넷 중독, 음주, 흡연과 같은 비감염성 건강문제가 대두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이들 관리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Jung, Choi, & Kim, 2012). 소아나 청소년들의 건강습성을 올바르게 길러주는 일은 성인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학교보건사업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투자이며 학령기에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면 그 효과가 성인기 까지 이어진다(An et al., 2011).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보건교

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를 14달러 줄이는 경제 효과가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되고 건강수명도 연장 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Song, 2011).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학교에 상근하며 학교보건을 전담하는 유일한 전문 인력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응급처치 및 보건지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학교 보건사업을 계획, 수행하고 있다. 보건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학교 내의 보건에 관한 제반 문제를 평가하고 건강교육과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관리자, 서비스제공자, 상담자, 교육자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Im & Lee, 2014). 특히 근래 들어 돌봄 교실, 방과 후 특기적성교실 등의 교육정책은 가족 돌봄 기능이 학교로 확대되어 보건교사역할도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맞벌이부부, 다문화가정과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같은 현대가족구조 변화추세는 보건교사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Sheen, 2016).

이렇듯, 학교인구의 보건교사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간단한 질병의 치료와 통상질환관리 외에도 예방을 포함한 보건교육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교 경우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부천원일초등학교 보건교사(교신저자 E-mail: sta59@korea.kr)

• Received: 6 April 2017 • Revised: 31 July 2017 • Accepted: 15 August 2017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won, Jinsook

Nursing office, Bucheon Wonil Elementary School  
46, Sosa-ro 819 beon-gil,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82-070-7096-6896 Fax: 82-32-672-5929 E-mail: sta59@korea.kr

2009년 3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재량활동을 이용한 학급별 보건교육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즉, 재량활동을 이용한 학급별 보건교육이란, 초등학교의 경우에 5, 6학년대상 재량활동시간에 연간 각각 17시간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3월1일부터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포함하도록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08).

하지만 이러한 역할의 확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인력은 학교인구 또는 학교규모와 상관없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23조에 의하여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 한명을 두며, 18학급 미만에는 1인을 둘 수 있다”라는 배치기준을 따르고 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6). 즉, 학급 수에 상관없는 배치규정으로 과대학급에도 보건교사들은 한 학교당 한 명만 근무하여 부과된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니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어, 이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학기, 신종 감염병 출현 시, 감염병 유행시는 업무량이 대폭 늘게 되는데, 이런 직무과다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증가는 보건교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Choi, 2002) 학생들의 건강관리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과도한 업무증가로 말미암은 피로, 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에서 불안감증대, 의욕상실, 집중력저하 등은 소진으로 이어져 교육활동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Kim, 2017), 이는 학교업무 수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이 양적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건교사의 직무와 인력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보건교사의 배치와 관련한 연구(Song, 2011),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수행 및 난이도(Cha, 2011), 초등학교 보건업무 기본방향 및 보건업무분석(Jeon, 2002), 보건교사의 역량모형개발(Park, 2012), 보건교사의 직무수행평가도구개발(Choi, 2015), 초등학교 사회자본과 보건실이용 및 학교적응의 관계(Sheen, 2016), 학교의 신종플루 대응실태와 개선방안(Kim, 2014), 초등학교 보건환경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Kim, 2004), 보건교사의 직무만족도(Choi,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보건교사의 직무수행시의 만족도, 보건업무방향 및 분석 그리고 보건업무 수행시 중요도와 난이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보건실이용의 증가현상과 신종 감염병 대응행시 보건업무가 증가된다는 것을 부분적,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보건교사관련 질적 선행연구로 초등 비담임교사(보건, 영양, 사서)의 교직경험 분석(Noh, 2012)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소수집단인 비 담임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위치와 역할과 관련된 경험과 대응방법을 반복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이용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고, Kwon (2015)은 근거 이론적 방법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을 연구하였으며, 또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적응과정(Lee & Lee, 2014)을 연구한 논문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교사대상 소진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Park과 Chu (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진관련 요인을 직무환경, 직무스트레스 및 대인관계요인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나,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설문문항 외에 생생한 소진경험을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에 반해 보건교사대상 소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건강관리자인 보건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직무소진에 대한 내면의 구체적인 경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보건교사가 과대학급 근무하면서 느끼는 소진경험은 무엇이며, 소진 시 내면적인 경험세계를 기술하여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살아있는 경험의 정확한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질적 연구 연구방법으로, 자신들의 산 경험을 생생한 언어로 표현하게 한 후 그 진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경험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깊이 있는 탐색은 추후 과대학급 보건교사의 근무환경과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며 건강한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과대학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과대학급 근무 시 체험한 실제적인 직무소진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과대학급근무 보건교사근무 조건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과대학급 초등보건교사들이 체험한 직무소진경험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그 경험과 본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 정서, 지각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과대학급 근무경험이 있는 초등보건교사로 현재 과대학급에 근무 중에 있거나, 혹은 과대학급근무경험이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과 스노우볼 표집(snow ball sampling)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처음 연구자의 동료 중 참여 선정기준에 맞는 몇몇의 보건교사를 우선표집 하였고, 그 후 대상자들을

소개 받아 표집 대상자를 늘려나갔다. 처음 참여의사를 밝힌 보건교사는 총 10명이었으나 실제 면담에는 1명이 개인사정(질병)으로 인터뷰에 불참하여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최소 나이 36세에서 최대 나이 49세로 평균나이는 43.6세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근무 학급 수는 최소 39학급에서 최대 53학급이며 평균은 45학급이며, 과대학급의 학생 수는 980명에서 2,300명까지 평균 1,403.6명 이었다. 참여자 해당학교 1년간 보건실 방문 아동은 5,000명에서 17,000명이며 평균 11,333.4명이다(Table 1).

### 3. 연구자 훈련 및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함으로써 질적 연구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었고, 질적 연구자이신 간호학교수에게 연구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받음으로써 질적 연구능력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평소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질적 연구방법론 책과 논문을 다수 정독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24년째 재직 중이며, 과대학급에 과거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과대학급 근무 초등보건교사의 직무소진경험구조와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 4. 자료 수집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O	M/F	Age (Yr)	No. of children (person)	No. of years working as a health teacher (in schools with large class sizes)	No. of classes	No. of students	No. of students visiting the office/yr.(person)
1	F	49	2	23 (5)	59	2,300	13,000
2	F	49	2	14 (2)	43	1,200	12,000
3	F	45	2	26 (4)	46	1,400	11,000
4	F	46	2	20 (3)	43	1,350	12,000
5	F	45	2	19 (2)	44	1,300	11,000
6	F	44	1	18 (2)	36	982	8,000
7	F	41	0	16 (3)	53	1,800	17,000
8	F	37	2	2 (2)	39	1,100	13,000
9	F	36	1	6 (4)	42	1,200	5,000

자료 수집은 I대학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 과정(IRB승인번호 160929-1A)을 거쳐서 2016년 11월 9일부터 12월 24일 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인터뷰 전에 참여자 선정기준에 맞는 교사에게 메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보내어 참여의사를 밝힌 보건교사들 대상으로 인터뷰 약속을 정하였다.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심층인터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개별심층 인터뷰참여자는 2명으로 1인당 약 1시간씩 1회 각각 진행하였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대상자 3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1회, 120분, 4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2회, 140분과 120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중심 질문으로는 '본인의 과대학교 근무(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이며, 하위 질문으로는 '가장 힘든(들었던)경험을 이야기 해주세요?', '본인의 소진경험이 학생들의 건강이나 학교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직무소진의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의 학교보건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의 개방형질문으로 개별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사용하였다.

##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은 Giorgi (1985)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우선 필사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느낌과 경험의 윤곽을 파악하였다. 둘째, 참여자의 진술 중 과대학급근무 초등보건의교사들의 소진의 경험에 관하여 의미가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의미 진술추출이 끝난 후 다시 전사본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빠진 의미 진술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였다. 셋째, 의미 진술의 단어, 구, 문장, 단락들의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개별 의미 단위로 나누어 구분한 후,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였다. 이 때 최대한 대상자의 언어와 표현을 이용한 in-vivo코드를 사용하였다. 이후 공통된 의미 단위로 묶으면서 개념을 추출하였다. 넷째, 추출된 개념들을 다시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여 범주를 세우고, 범주는 다시 주제로 통합

하여 보건교사 소진 경험의 의미구조를 밝혔다. 그 후 필사한 자료를 다시 읽어 내려가며 과대학급근무 초등보건의교사가 경험한 직무소진경험의 의미구조, 전후맥락, 관계성 등을 파악하면서 주제와 범주를 재합성하였다.

## 6. 연구의 질 확보

연구결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Guba와 Lincoln (1989)이 제시한 일관성, 진실성, 중립성, 적용성의 4가지 평가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자료의 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둘이상의 연구자가 분석과정에 참여, 논의, 검토하여 오류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둘째,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와 해석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메일로 보내어서 참여자확인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립성유지를 위해 인터뷰 시 의식적으로 연구자의 선입견배제(판단중지)를 하였다. 넷째, 적용성을 높이고자 포화상태가 되도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인터뷰 시작 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방법, 비밀보장과 익명성, 자발적 연구 참여 및 중단 가능성과 연구 후 인터뷰자료 폐기 등에 대해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면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내용의 녹음 및 메모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였으며, 인터뷰의 전사파일에 본인 식별이 가능한 표지 자(대상자의 이름 및 소속)를 삭제하여 번호로 저장하였고, 자료의 내용 또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인터뷰장소와 시간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학교 보건실과 조용한 방이 있는 카페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직무소진경험은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와 9개

Table 2. The Significant Themes of Participants Experiences

Themes cluster	Themes
Difficult and lethargic	Physical and mental exhaustion owing to increasing workload
	Frustration due to the unreasonable task allocation and reward system
	Struggling alone
Gradual deteriorating conditions	Low self-regard
	Only doing the bare minimum work
Losing work-life balance	My forgotten expertise
	Lowered quality of life
Enduring for a short time and leaving	Needing to grasp the know-how of adaptation
	Wanting to endure for a short time and leave

의 범주가 도출 되었다. 과대학급에 근무경험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소진경험은 ‘힘들고 무기력함’, ‘상태가 악화 되어감’, ‘일과 삶에 균열이 생김’, ‘적응과 도피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섰’ 등 4개의 주제로 나타났다(Table 2).

### 1. 주제모음 1: 힘들고 무기력함

첫 번째 주제모음인 ‘힘들고 무기력함’은 참여자들은 많은 보건실 방문 학생으로 인한 힘들고 지침, 잦은 큰 사고 발생으로 인한 긴장감, 증가하는 각종업무를 혼자 일을 처리해야 상황에 버거움으로 너무 힘들어 기진맥진해진다.

#### 주제 1. 증가되는 업무로 심신이 지쳐감

과대학급보건실은 응급상황과 응급환자가 많아 병원 응급실 같다. 출근 시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고, 큰 사고가 생길까봐 항상 조마조마 초긴장상태로 근무한다. 문만 열리면 쏟아져서 오는 학생들로 인해 처치하다보면 점심 못 먹을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서있고, 잠시 쉴 틈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고, 에너지가 방전되어 돌아오지 않아 업무집중력이 떨어진다. 또한 ‘방과 후 돌봄 교실’과 ‘특기적성교실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확장에 따른 참여자의 역할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보건실을 병원으로 생각한 일부 학부모들은 만성병질환자 치료와 가정에서 생긴 외상도 처치를 원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매일매일 주중까지 피곤함을 느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구요.

(중략) 갑자기 확 기운이 빠지는 느낌 그러면서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그때는 완전히 긴장 했던 것 같아. 학생들이 1100명가량 되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라 항상 응급상황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음 긴장하면서 매일 출근하는 상태입니다. (참여자 8)

무조건 인력 지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강제성을 띄어서라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참여자 4)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있고 하니 보건교사가 생각보다 정규 수업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일은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여자 8)

이게 저녁에 일을 하려고 불을 켜놓으면 캄캄하고 어두워도 아파트 놀이터서 놀다가 보건실에 불이 켜있는 걸 보고 오는 거예요. (참여자 4)

너 가 알아서 처치해 달라 책임져 달라 막무가내 요 구들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참여자 8)

#### 주제 2. 비합리적인 업무배분과 보상체제로 인한 괴로움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학교 발령에 참여자들은 폭탄 맞았다고 표현한다. 또한 관리자, 행정직원의 힘의 논리에, 기본에 의해 달라지는 업무분배로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을 참여자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업무해석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보상체제에서 보건업무는 배제되어 참여자들은 매년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다.

성과급이 먼저 나를 죽이더군요. 내가 일을 안 해서 못 받는 것 좋다는 거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의욕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반대인거라...(참여자 3)

분명히 학교라는 게 돌고 돌아서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8급 되고 7급 되고 언젠가 실장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나는 계속 학교 보건교사로 이일하고 저 사람들은 승진해서 와 있고 실장님 말해야하는데...(참여자 9)

그냥 새 지역에 갔으니까 그냥 간 거지 이제 내가 원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참여자 9)

업무는 딱 정해지는 건 것이 아니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옮길 때 마다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참여자 3)

### 주제 3. 혼자서 고군분투 함

참여자들은 업무특성상 주변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어 판단과 결정을 혼자 해야 하니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학교에 사람은 많은데 의논을 할 대상도 없고, 도움을 받기 쉽지도 않아 참여자들은 옆 학교 보건교사에게 물어보거나, 일이 많으면 혼자 주말이나 퇴근 후에 남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의전수령 절차는 부장회의 중심이라서 참여자들에게 전달이 잘 안되어, 학교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리다 보니 보건 업무협조와 전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참여자들은 방구석에 탁 치워 저서 외톨이가 된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열불은 나는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은 없지 일은 혼자 다해야 되지...(참여자 7)

그니까 도움 받을 곳이 쉽지 않구나 도움 받을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청할 곳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참여자 8)

외로운 섬 같은 존재로 주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힘든 거 같아요. (참여자 3)

보건교사까지도 저렇게 말을 하네. 한 번도 근무를 해보지 않은 거대학급보건교사도 그걸로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진짜 섭섭했어요. (참여자 5)

보건선생님은 특히 일반 선생님하고 섞이지 못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 일 수 있어 서로 하는

일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참여자 4)

## 2. 주제모음 2: 상태가 악화 되어감

두 번째 주제모음인 '상태가 악화 되어감'은 아픈 것이 아닌데 힘들어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서, 이야기 들어 줄 대상이 필요해서 이리저리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은 보건실을 찾고 있다. 그러나 보건실을 휴게실 여겨 학원가기전 학생을 한 두 시간 침대에 눕혀놓길 원하는 학부모, 교실 내 문제인데 수업에 방해된다고 보건실로 학생을 쫓아버리는 교사, 일부학생들은 졸릴 때 잠을 자는 장소로 보건실을 생각한다. 보건실을 놀이방처럼, 보건교사를 대일밴드나 붙이고 소화제나 주는 단순인력으로 인식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사기가 꺾인다.

### 주제 1.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

참여자들은 수많은 업무와 더불어 일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방임된 아이들을 본인들이 떠났게 되어, 자신은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표현한다. 가정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떠맡게 되는 상황과 보건실을 휴게실로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인하여 참여자들의 고유 업무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참여자들의 피해의식으로 나타난다. 즉 내가 만만해서, 보건실을 시간 때우는 장소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천덕꾸러기 신세, 시너신세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사기저하로 이어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개네들이 아프다고 하면 교실에서 문제 있을 교실에서 쫓겨 난 아이들이라고 생각도 들었고...(참여자 9)

애들 생각하면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바쁘고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참여자 8)

이 일하면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참여자 9).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 받다 보니 주눅이 들어서 할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참여자 5)

### 주제 2. 최소한의 업무만 하게 됨

참여자들은 보건실을 자주 방문하는 아이들은 보면

또 왜 왔을까? 집에서는 안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고, 딱 보면 기운이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된다. 응급처치가 아니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참여자들은 마땅히 해줄 것도 없고 일인케어로 처치하기엔 시간과 인원이 부족하다. 다른 애들도 돌봐야하는데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상황에 답이 없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참여자들을 기본적인 처치와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방법으로 적응하게 만들며, 또한 일일에 나한테 맞는 일인지 회의감이 들게 된다.

그냥 컴퓨터 화면 보면서 사무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참여자 8)

개네들 얼굴 보면젠 또 왔나 또 배 아프겠지 머리 아프겠지 그러면 답답하고... (참여자 9)

뭐 자꾸 오는 애들 그냥 빨리 보내게 되고 그냥 저 사정안하고 미아리산 쫓요. (참여자 1)

질적인 하락도 느껴지고 그냥 더 이상 발전 없는 그냥 거기서 공문 따라 하는 그런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반성해야하는데... (참여자 9)

직장인이라면 어떤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행복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지 않아요. (참여자 2)

아 딸일 찾아 봐야 되나 이러면서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싶은 느낌 아 다신 안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 때도 있고... (참여자 7)

### 3. 주제모음 3: 삶과 일에 균열이 생김

세 번째 주제모음인 '삶과 일에 균열이 생김'은 참여자들은 집에 가면 피곤하고 지쳐 자녀가 귀찮고, 냉정해지고, 명령조의 말을 하고, 애들한테 짜증내게 되어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 보건실 방문 학생들을 꼼꼼히 사정하여 처치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도 죄책감이 든다.

#### 주제 1. 잃어버린 나의 전문성

참여자들은 학생에게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고 싶지만, 과도한 학생수로 인해 방문아동에 대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학생들을 정해진 시간에 처치를 해야 하니

꼼꼼하게 문진하고 세심하게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없다.

저는 꼼꼼하게 하고 싶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 너무 미숙해 보여서 싫어... (참여자 5)

그니까 어 너무너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선 계속 처치를 해줘야 되고 계속 어디가 아파있는데 충분히 그걸 못하면 나중 이 아이가 병원 갔다 왔을 때 골절 돼서 돌아오고 그냥 보냈는데 무슨 큰 병 되서 막 이런 경우 가슴이 철렁 할 때가 되게 많죠. (참여자 7)

애들이 주빚주빚해요. (중략) 일단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는 게 미안하죠. (참여자 9)

#### 주제 2. 삶의 질이 추락함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생긴 크고 작은 사고로 불안을 느끼고, 심지어 몇몇 참여자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생긴 응급상황을 경험한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시간의 압박 등으로 인해 위장장애, 악몽을 꾸기도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운동할 시간, 자기계발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자기발전이 없어 과대학급근무가 싫다고 한다. 업무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투사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하게 되고 침착 하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질적으로 잘해준 건가 상황을 잘한 건가 계속 리플레이하는 외상성 증후군이 리플레이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8)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기 때문에 짐계 가면 지치고 피곤하니깐 애들한테 말이 곱게 않나가요. 명령조가 되고 말이 강해지니까 애들한테도 타이트하게 얘기하고... (참여자 8)

### 4. 주제모음 4: 적응과 도피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섰

네 번째 주제모음인 '적응과 도피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섰'은 일부 참여자들은 건강문제가진 학생들 파악도 되고, 응급상황 시 판단능력도 생기고, 과거병원경력과 지역사회응급구조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일이

좀 수월해짐을 느낀다. 또한 일부참여자들은 빨리 학급 수직은 학교로의 이동을 원하며, 그곳에서는 보건실방문아동에게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보건실문 앞에 학생들이 줄서서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몸과 마음이 여유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주제 1. 점차적응이 되어감

몇 명 참여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적응해나가며 여러 지역사회 자원을 잘 이용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이러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화를 참으며 때론 분노를 표출 해가며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해준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라고 한다.

*내가 씹뚱으로 변하더라구요.(참여자 3)*

*우리도 숨통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약간은 직장생활이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약간의 힐링도 필요한 건데...(참여자9)*

*과대학급 정신없는데 나를 위로 해준 게 또 학생들 인거야...(참여자 7)*

주제 2. 도피의 기회를 기다리며 버텨

일부 참여자들은 힘든 상황에서의 적응에 대한 노력보다는 이 상황에서의 도피에 대한 기회를 기다리거나 벗어날 수 있을 시간을 기다리며 참아내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2년 있다 바로 갈 거야 진짜...(참여자 2)*

*이 학교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쉬고 싶은 거 있죠. 방학하면 학교 쪽으로 얼굴도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참여자 7)*

IV. 논 의

본 연구 결과 과대학급 보건교사 소진의 경험은 첫째, '힘들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의 직무 환경과 소진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Park & Chu, 2010) 소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학급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학급 수 증가와 보건실방문자 수증가가 정서적 탈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Yoo와 Seo (2016)도 보건교육환경에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항목은 업무량이 과중하고 타 업무가

많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과대한 학교 인구나 이로 인한 보건업무 및 행정업무 증가가 가장 크게 과대학급 보건교사들의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과대한 학급 수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로 힘들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정서적 탈진 현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업무의 과부하에서 오는 불만과 압도적인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감 그리고 그 업무를 정해진 시간에 해내야 하는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참여자들은 사회적/정책적 변화와 함께 보건교사의 직무노동은 가중화되었다고 호소하였는데, 실제로 2006년부터 학교 교사 내 환경업무, 2007년도에 학생정신건강관련업무가 시작되었고 2009년 보건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또한 미세먼지 관리 등 학교 환경관련 업무도 첨가되었다(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6).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6) 개정으로 학교교직원의 응급처치 관련업무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2016)에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내용이 신설되었다. 사회적/정책적 변화로 증가된 이와 같은 업무들은 대부분이 보건교사 업무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신종 감염병 출현 또한 학교업무를 대폭 증가시키는 것에 기여한다. 학교 신종플루 확산기 동안 보건교사의 업무 증가율은 121% 이었으며 하루 업무 중 신종플루와 관련한 업무 비율은 77.5%에 달한다(Shin, Kim, Hong, & Lee, 2010)고 하였다.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삶의 질이 강조되는 사회의 정책적 변화를 예견해 볼 때 보건교사의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야하는 보건교사의 상황을 참여자들은 희생자, 아웃사이더와 같은 단어로 표현하였다. Oh와 Kwon (201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서 크게 기여하는 영역으로 조직 내 갈등과 합리적 의사 소통체계의 부재를 꼽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반교사와 물리적으로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만 하는 일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한계는 교사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움으로 나타나며, 특히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을 동료교사들에게



이해 받거나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 큰 정서적 탈진을 느낀다고 하였다.

소진의 두 번째 경험은 '상태가 악화되어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존감의 저하와 일에 대한 열정 저하로 그 변화를 표현하였다. 실제로 Park (2016)은 직무 소진과 관련하여 냉소주의적 태도로 변화하는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과 조직이 요구하는 규칙 상충할 경우 갈등상태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어조, 표정, 몸짓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실패하면 감정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개인의 자기 비하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냉소주의적 태도로 연결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마주쳤을 때, 진이 빠지고 쫓아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 자기만 돌봐달라고 하는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감정들을 조절하려고 할 때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변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감정조절속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자존감 저하와 피해의식은 Park (2016)이 설명하듯이 개인의 자기 비하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냉소주의적 태도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소진의 경험은 '일과 삶에 균열이 생김'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o와 Kwon (2017)의 보육교사 소진연구에서 소진은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오래 지속될수록 개인의 삶과 건강에 대해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개인적 측면을 보면 참여자들은 직무 소진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임하거나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한다고 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소진이 배우자나 자녀를 향한 분노표출 및 의존으로 나타나며, 방치되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직무관련연구 선행연구는 Im과 Lee (2014)는 보건교사는 보건중요도와 난이도와 수행 빈도가 가장 높은 직무는 의료인으로서 응급 및 통상질환자간호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 Jung, Ahn과 Chung (2003)연구에서 학생들은 보건교사의 역할 중 보건봉사자와 교육자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과대 학급보건교사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많은 보건실 방문

학생들로 인하여 위에 언급한 중요한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학생들을 보살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에 미흡한 응급처치가 상당 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역할수행을 미흡하게 수행한 것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항시 느끼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학생들에게 큰 질함으로 이어졌을 때 자신감 저하로 나타났다고 있었다.

넷째, 그러한 보건교사들의 직무 소진의 결과는 '적응과 도피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섬'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직무 소진을 겪게 되는 환경 안에서 갖가지의 방법으로 적응의 노후를 찾으며 적응하려는 행동과 도피를 기다리며 버티는 두 가지의 행동으로 크게 나타났다.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으로는 사소한 것에 의미 찾기, 감정을 표출하기, 힐링의 시간을 갖기 등 다양한 행동과 방법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Lee와 Lee (2014)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역할 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 그들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반대로 도피(이직)를 기다리며 버티는 행위도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빨리 적당한 학급으로 전근을 생각하며 현재를 버티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 대다수 참여자들도 최소한 현직 학교 근무 년 수 만 지나면 이직을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Park과 Chu (2010)의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잦은 이직이나 결근 등은 개인생활의 질적 저하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대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의 직무 소진경험을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4개의 주제모음과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모음인 '힘들고 무기력함'은 '증가되는 업무로 심신이 지쳐감' '비합리적인 업무배분과 보상체제로 인한 피로움', '혼자서 고군분투함'으로 도출되었고, 두 번째 주제모음인 '상태가 악화 되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 '최소한의 업무만 하게 됨' 으로 도출

되었으며 세 번째 주제 모음인 '일과 삶에 균열이 생김'은 '잃어버린 나의 전문성', '삶의 질이 추락함'으로 도출되었으며 네 번째 주제모음은 '적응과 도피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섬'이며 '점차적응이 되어감', '짧게 버티고 바로 떠나기'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과대학급보건교사 소진의 영향은 직장에서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건교사배치기준이며 이는 신체적 탈진과 관련이 깊다. 학교 내 다른 교직원의 배치는 학생 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보건교사는 학교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 학교업무 분배는 교직원수에 따라 분배되어져 학습수가 많으면 교직원 수가 증가하니 각 개인에게 배부되는 행정업무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보건교사는 한 학교에 한명만 근무하기에,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업무와 응급처치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 또한 보건업무의 특성상 일반교사들과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가 많다. 이런 근무환경은 보건교사 개인이 책임을 감수하는 것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보건교사의 직무 소진과 불만 야기를 낳고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소진의 요인은 보건교사 근무환경이며 이는 정서적 탈진현상과 관련이 깊다. 보건교사는 일반교사들과 하는 일이 다르고 서로의 업무를 모름으로 인해서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공감어린 위로나 지지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학생건강문제, 공문서처리, 감염병 예방대책, 각종건강검사관련 업무등 문제점과 처리절차, 해결방안 절차를 학교 내 교사나 관리자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인근의 보건교사들과 대화를 통해 찾고 있다. 직무상문제는 같은 공동체에서 해결되어야하며, 동료교사 정서적 지지와 관심,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가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보건교사의 소진과 잦은 이직 결과는 업무 파악이 어려워 응급환자발생시 대응방법이 미숙해지게 되고 이런 문제는 학생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소진된 사람은 쉽게 울고 아주 작은 압력에도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쉽게 화를 내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압박한다고 느끼며 남을 비난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게 된다(Freudenberger, 1974). 본 연구

에서 제시되었듯이 과대학급근무 보건교사들은 이런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무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생의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리자와 일반교사대상 학교보건의 중요성과 과대학급 보건교사 업무와 역할에 대해, 행정직원을 대상 학교보전에 대한 인식과 예산, 행정, 시설업무 지원관련 직무연수가 필요하며, 또한 학부모 대상으로는 보건실 운영의 목적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대학급 보건교사 직무소진예방을 위한 근무조건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전부 여성이어서 남자보건교사라면 소진의 체험구조가 다를 수 있기에 결과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근무자까지 포함한 전체 보건교사의 직무소진경험을 담지 못하였기에 이를 고려한 확대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n, O. H., Jung, U. S., Kang, M. S., Choi, H. J., Choi, H. J., Cha, N. H., & Jung, M. J. *School health* (2nd ed.). Seoul: Medical Korea Press.
- Cha, K. M. (2011). *Job performance and difficulty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Choi, J. B. (2015). Development of competency scale for Korean health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1(1), 105-130.
- Choi, S. J. (2002). *A comparative study on a level of job stress for nurse-teacher and ordinary teacher and its managing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Choi, J. U. (2007). *A study on the job*

- satisfaction of health teac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yang University, Daejeon.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cience Issues*, 30(1), 159-165. <http://dx.doi.org/10.111/j.1540-4560.1974.tb00706x>
- Guba, H. S.,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ennsylvania: Dugesne University Press.
- Im, M. Y., & Lee, S. Y. (2014). Job analysis of school teachers in Korea-based on dacum job analysi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3), 619-632. <http://dx.doi.org/10.5932/JKHN.2014.28.3.619>
- Jeon, S. E. (2002). *Research on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services and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system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ung, Y. H., Choi, Y. H., & Kim, N. Y. (2012).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health education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16-27. <http://dx.doi.org/JKPHN.2012.26.1.016>
- Jung, G. S., Ahn, S. H., & Chung, E. S. (2003). Role expectation and role performance for school health educator as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ogniz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5(2), 125-134.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36>
- Kwon, J. O., Oh, J. N., Kim, E. H., & Hahn, D. D. (2015). Professional identity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1(1), 64-73. <http://dx.doi.org/10.4094/chnr.2015.21.1.61>
- Kwon, E. J. (2016). *The effects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on burnout and engagement in schoo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Kim, J. L. (2004).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health environment on the schoo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Kim, U. J. (2017). Exploration of causes and coping strategies for teacher burnout.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22(1), 1-38.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ng-si, (2012, December). *The statistics in Korea and world education series: The Quality of Students life*. Retrieved March 10, 2017, from <http://www.kerdi.re.kr/khome/main/member/insertMemberForm.do>
- Lee, J. H., & Lee, B. S. (2014). The role adaptation process of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44(3), 305-316. <http://dx.doi.org/10.4040/jkan.2014.44.3.305>
- Ministry of Education. (2008). *Notification No. 2008-148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ejong-si: Author.
- Noh, Y. A. (2012). *An analysis of non homeroom teacher's experience in element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 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6). *Ministry of education rule No. 90*. Retrieved March 9, 2017, from <http://www.moleg.go.kr/main.html>
- Oh, J. N., & Kwon, J. O. (2010). Job identity and job o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1(3), 341-350. <http://dx.doi.org/10.4094/chnr.2010.21.3.341>

- doi.org/10.12799/jkachn.2010.21.3.314
- Park, E. J., & Chu, J. 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nvironment and burnout of health teacher*.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40<sup>th</sup> anniversary of the founding Korea Society of Nursing Science, Seoul.
- Park, K. S. (2012). *A competency model for health teacher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Park, S. E. (2016). *Emotional labor and job burnout*. Seoul: Duman Press.
- Song, Y. H. (2011). *A study on support staffs in large class schools based on job analysis of school health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Sheen, M. S.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capital, use of school health room, and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1), 44-71.
- Shin, S. M., Kim, H. S., Hong, M. S., & Lee, H. W. (2010). The job status of health teacher, school nurse, during epidemic outbreak of influenza H1N1 in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1), 63-70.
- Yoo, H. S., & Kown, J. H. (2017).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teacher efficacy, organization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113-132.
- Yoo, M. S., & Seo, E. J. (2016). Awareness of health education environment,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1), 42-53.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1.42>

---

## Understanding Job Burnout Experiences in Elementary School Nurses Taking the Responsibility of Large Classes

---

**Park, Sihyun**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won, Jinsook** (Bucheon Wonil Primary School, School Nurse)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burnout among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with large class sizes, and to explore the nature and meaning of those experience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four steps of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regarding the experiences of burnout of 9 participants, which were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Results:**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of teaching larg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4 themes and 9 domains. The themes were "difficult and lethargic," "gradual deterioration conditions," "losing work-life balance," and "enduring for a short time and leaving." **Conclusion:** Burnout not only affected the teachers at work but also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teachers' personal and family lives outside of school.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teacher assignment criteria were the strongest factors influencing burnout, which contribute to physical exhaustion. Health teachers are assigned based on different criteria that do not consider the number of students. Another factor contributing to burnout among health teachers is a work environment conducive to with emotional exhaustion. Health teachers and content teachers are not sufficiently knowledgeable regarding the specifics of each other's work.

**Key words :** Qualitative, School health services, Burnout, School nursing, Primary schools